



#럭셔리 #기념일

'2020 와인스펙테이터 TOP 9'

펜폴즈 RWT BIN 798 쉬라즈

Penfold RWT BIN 798 Shiraz

지역	호주 > 바로사밸리		
포도품종	쉬라즈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C		
테이스팅 노트	최상급 포도에서 풍기는 감미로운 아로마와 부드러운 텍스처에 입 안에서 맛의 확신감을 부여하는 듯한 풍요로운 플레이버, 촘촘하게 조직된 탁월한 구조감까지 바로사 밸리 최고 수준의 품질임을 증명하며, 바로사 밸리 프리미엄 쉬라즈를 정의할 수 있는 와인이다. 딥 크림슨 레드 컬러로 초기에는 카르파치오 미트, 스테이크 타르타르, 그린 올리브, 로즈마리 등의 프레시한 아로마에 스월링 후에는 패스츰리, 아몬드 크로아상, 시나몬 번, 크림 브뤼레와 베이커리류의 고소한 풍미가 이어진다. 풀바디로 입 안을 상쾌하게 적시는 산도감과 풍부하게 넘치는 과실 미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어린 빈티지일 때는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며 숙성되었을 때 잠재력이 더욱 기대되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소고기, 양고기		



제품설명



'RWT 바로사 밸리 쉬라즈는 멀티 리저널 블렌딩과 아메리칸 오크 숙성이라는 그랜지와 대조적으로 비견되는 아이콘 와인이다. 오직 '바로사 밸리' 단일 지역에서 프렌치 오크만으로 숙성되는 RWT는 'Red Winemaking Trial'이라는 의미로 1995년 펜폴즈를 대표할 프리미엄 레드와인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내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1997 빈티지를 런칭했다

수상내역



2021 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7점 TOP 100 선정
2017 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6점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았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